

대졸자의 학자금대출 상환실태 및 부담요인 분석

황 남 희¹⁾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졸자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경제적 및 심리적 상환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학자금대출 상환실태에서 학자금대출의 상환부담자의 61%가 본인이며, 본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둘째,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소비와 지출을 감소한 경우가 전체의 40%에 이르며, 원금 또는 이자를 연체한 경험이 33%로 나타났다. 셋째,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및 심리적 상환부담의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채무 및 일자리 등 경제적인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요인들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넷째, 경제적 상환부담에는 채무여부가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심리적 상환부담에는 학자금대출 연체경험, 일자리여부와 형태가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대학 관련 변수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할 때 활용되는 절대평가지표에 취업률이 고려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학자금대출제도의 재정유지가능성을 위해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학자금대출제도의 재정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졸자의 취업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우리나라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현재의 국가위상에 놓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등교육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도 고등교육의 역할은 중요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고등교육은 개인차원에서 지식 및 직업의 성취만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학자금대출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을 동시에 경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며(김훈호, 2011), 최근 제도적으로 큰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변화가 있었다. 2005년 2학기부터 기존의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 정부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학자금대출의 수혜인원과 대출한도가 크게 확대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 contingent loan)을 도입하여 졸업 후 일정 소득수준 이상일 때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재학 중 상환부담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자금대출제도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면서 교육기회의 형평성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자금대출 미상환(default)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의 공적보증으로 당장의 재정부담이 줄어들더라도 학자금대출제도의 기본 특성상 미상환에 따른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자금대출 실시단계에서 자격기준과 지원방식을 결정할 때 학자금대출 미상환, 즉 연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을 이용하여 대출자의 학자금대출 상환실태를 파악하고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자료와 분석방법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대출자의 학자금대출 상환실태와 경제적 및 심리적 상환부담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V장에서 분석결과를 요약, 논의한 후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 학자금대출제도에 관한 연구는 높은 고등교육열 및 등록금에 비해 관심을 적은 편이며, 주로 제도적 측면에서 학자금대출제도에 정당성에 대한 논의와 제도현황,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김안나·이병식, 2008b; 하연섭 외, 2008, 2009; 남수경, 2012). 그러나 김지하·이병식(2009)가 선구적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과 패널로짓모형 등을 이용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수요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이후, 미시자료를 이용한 학자금대출제도의 효과성연구에 큰 진전이 있었다.

최근에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학자금대출과 노동시장성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경선·김영식(2011)과 송창용·손유미(2011)은 한국교육고용패널을 이용하여 학자금대출이 노동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오호영(2012)은 대출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통해 용자로 대학 학비를 조달한 경우 2.7%의 임금페널티를 발견하였으며, 이필남·김경년(2012)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학자금대출자는 임금수준이 5.2%의 낮은 일자리로 보다 빨리 취업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학자금대출과 노동시장성과에 대한 국외 연구에서는 학자금대출자 미대출자에 비해 초기 임금수준이 높다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Rosemtjal et al., 1996; Woodworth et al., 2000). 그리고 초기의 높은 임금수준에 비해 이후 임금상승률은 낮은 편으로 밝혀졌다(Minicozzi, 2005).

한편 학자금대출의 노동시장성과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학자금대출의 채무불이행은 제도운

영에 필요한 재원고갈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성과와는 별도로 학자금대출 미상환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이윤경 외(2012)가 유일한 실정다. 이윤경 외(2012)는 대학특성에 따른 학자금대출의 연체율을 분석하여 설립주체, 전공계열, 설립유형, 대학소재지 등이 학자금대출의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개인 자료가 아니라 대학집단의 자료로 학자금대출자의 재학여부 및 취업여부 등 개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 8차년도 대출자를 대상으로 개인특성을 고려하여 학자금대출의 상환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학자금 상환부담은 경제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이 상이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구분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상환부담과 심리적 상환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한가? 둘째, 일자리는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및 심리적 상환부담을 모두 감소시키는 요인인가? 셋째, 소득수준은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및 심리적 상환부담을 모두 감소시키는 요인인가? 넷째, 졸업대학 관련 특성은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및 심리적 상환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가?

Ⅲ. 자료 및 분석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고등학교 코호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고등학교 코호트는 2004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중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각각 2,000명씩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²⁾. 조사내용에는 학생에 대한 개인 변수 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구 및 교사에 대한 변수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 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중학교 코호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코호트만 분석한데에는 8차년도(2011년)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중학생 코호트의 경우는 2년제를 포함하여 대학졸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코호트는 8차년도에 전문대 여성은 졸업 후 5년이 지났고,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은 3년이 경과하였다. 또한 4년제대 졸업자 중 여성과 남성 각각 3년과 1년을 경과한 시점이다. 2011년 대학생의 10명 중 4명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ku/ha/prg_kuFAADs.jsp

(39.4%)이 휴학을 하고 평균휴학기간 13.8개월³⁾, 졸업후 첫 번째 취업을 위한 소요기간이 11개월⁴⁾인 점까지 감안하면, 본 연구의 목적인 대졸자의 학자금대출 상환실태와 상환부담을 살펴보는 것은 고등학교 코호트만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범위는 3차년도에서 8차년도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기본적인 개인 속성변수들과 학자금대출 상환실태, 상환부담수준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8차년도 자료를 주로 이용하지만, 졸업대학 관련 변수들은 졸업시점에 따라 3차~7차년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2004년 고3코호트를 종단적으로 조사할 경우 남성은 군입대로 인해 사회진출이 여성과 비교하여 늦어지게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연구하기 위해 2010년(7차년도)을 기준으로 여성 패널과 동일한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는 남성패널 757명을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부터 조사가 실시된 기존패널과 구분하기 위해 이를 보정패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보정패널은 성별이 모두 남성이라는 점과 기존패널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보정패널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2. 분석방법⁶⁾

본 연구는 빈도분석을 통해 학자금대출 상환실태를 살펴본 후,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여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상환부담요인,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학자금대출의 심리적 상환부담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가 이항(binary) 선택성일 경우 일반적인 선형회귀모형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즉 종속변수가 연속(continuous)적이고 독립변수와 선형성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추정치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속변수가 1 또는 0으로 두 가지의 선택형일 경우 로짓모형(logit model)이 더욱 바람직한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경제적 상환부담은 학자금대출의 연체경험여부로 설정하여 1.예, 0.아니오의 이항선택형이므로 로짓모형을 활용한다.

반면 선택지가 세 가지 이상의 다항선택형이며 위계를 가지지 않고 단순히 순서화(ordered)된 형태일 경우⁷⁾에는 로짓모형의 개념이 보다 확장된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이

3) 한국고용정보원, 고졸청년, 대학 진학을 낮아지고 취업률은 높아져, 2013. 2. 1차 보도자료.

4) 통계청, 청년층 첫취업소요기간 증가, 고령층 58.5% 장래에 일하기를 원함, 2011. 7. 28차 보도자료.

5) 8차년도에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문문항이 추가되었으며 상환부담수준은 8차년도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6) 이성우 외(2008)와 오호영(2012)을 참고하였다.

7) 즉 리커트척도(Likert-Type Scale)의 경우를 의미한다.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심리적 상환부담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전형적인 순서형 다범주에 해당된다.

서베이조사의 5점 척도에서 획득한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정도는 실제로 응답자들이 학자금대출로 인한 상환부담이 아니며 이는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잠재변수, y^* 가 된다. 응답자가 i 가 1~5의 값 중 하나인 'j'로 응답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이때 F 는 누적확률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β 는 회귀식의 추정계수, α 는 상수항의 모수(threshold parameter)를 의미한다. 또한 순서형 로짓모형에서 μ 는 로짓분포, $F(z) = e^{-z} / (1 + e^{-z})$ 를 따른다(Cameron & Trivedi, 2010 ; 오호영, 2012에서 재인용).

$$\begin{aligned} \Pr(y_i = j) &= \Pr(\alpha_{j-1} < y_i^* \leq \alpha_j), \quad \text{단 } y_i^* = x_i'\beta + \mu_i \\ &= \Pr(\alpha_{j-1} - x_i'\beta < \mu_i \leq \alpha_j - x_i'\beta) \\ &= F(\alpha_j - x_i'\beta) - F(\alpha_{j-1} - x_i'\beta) \end{aligned}$$

로짓모형에서의 오즈비(odd ratio)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므로 x_k 의 1단위 증가는 순서형 변수가 j 보다 작거나 같을 오즈비를 $\exp(-\beta_k)$ 가 되도록 만든다.

$$\frac{\Pr(y \leq j | x, x_k + 1)}{\Pr(y \leq j | x, x_k)} = e^{-\beta_k} = \frac{1}{e^{\beta_k}}$$

IV. 실증분석

1. 학자금대출 상환실태

대출자의 학자금대출 상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고용패널 8차는 총 3,121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57.3%인 1,787명이 대학졸업자로 파악되었다⁸⁾. 8차 기존패널 2,408명 중 51.3%인 1,235명, 8차 보정패널 713명 중 77.4%인 552명이 대출자이다.

대출자의 28%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004년 고3코호트(1차년도)로 구성된 기존패널은 27.2%로 보정패널 29.7%로 보다 조금 높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8) 대학졸업후 대학원으로 진학한 인원을 제외한 수치이다.

〈표 1〉 학자금 대출경험

(단위 : 명, %)

	전체	기존패널	보정패널
예	500 (28.0)	336 (27.2)	164 (29.7)
아니오	1,287 (72.0)	899 (72.8)	388 (70.3)
전체	1,787 (100)	1,235 (100)	552 (100)

자료 : 한국교육고용패널 8차

지난 1년간 학자금 대출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실태를 살펴보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고 있는 경우가 4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가 31.3%,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가 16.7%, 원금과 이자 모두 미상환이 5.6%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존패널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며, 보정패널의 경우 기존패널에 비해 원금을 모두 상환한 비율이 약 2배 높았다. 그러나 원금 및 이자를 상환중인 비중은 기존패널과 보정패널 각각 48.2%와 42.5%로 전체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표 2〉 학자금 대출 상환실태

(단위 : 명, %)

	전체	기존패널	보정패널
원금 상환 완료	155 (31.3)	80 (23.8)	75 (46.9)
원금 및 이자 상환중	230 (46.4)	162 (48.2)	68 (42.5)
이자만 상환중	83 (16.7)	67 (19.9)	16 (10.0)
모두 미상환	28 (5.6)	27 (8.1)	1 (0.6)
전체	496 (100)	336 (100)	160 (100)

자료 : 한국교육고용패널 8차

대출자 중 아직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시작하지 않은 28명과 결측치를 제외하고 415명에게 누가 주로 학자금을 상환하는지 살펴본 결과, 본인이 절반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었다. 본인과 부모님 각각 61.0%, 36.9%로 전체의 97.1%를 차지한다. 기존 및 보정패널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존패널의 경우 본인이 주로 부담한다는 비율 56%, 부모님 41%인 반면, 보정패널은 각각 69.5%와 29.9%로 보정패널의 본인 부담 비중이 더 높았다. 이는 보정패널이 전부 남성이라는 점에서 성별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상환 주부담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본인이 주부담자인 경우가 남성(64.5%)보다 7.8% 낮은 56.7%로 나타났다.

〈표 3〉 학자금 대출상환 주부담자

(단위 : 명, %)

	전체	기존패널	보정패널
본인	253 (61.0)	146 (56.0)	107 (69.5)
배우자	7 (1.7)	6 (2.3)	1 (0.6)
부모님	153 (36.9)	107 (41.0)	46 (29.9)
가족 또는 친지	1 (0.2)	1 (0.4)	0 (0.0)
기타	1 (0.2)	1 (0.4)	0 (0.0)
전체	415 (100)	216 (100)	154 (100)

주 :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을 시작한 415명이 대상임.

자료 : 한국교육고용패널 8차

학자금 대출상환 주부담자의 본인여부는 본인의 소득수준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인(기혼인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스스로 학자금 대출상환의 주부담자가 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대출상환 주부담자가 본인인 비중은 47.4%이지만,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3%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본인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님이 학자금 대출상환의 주부담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모님이 학자금 대출상환을 주로 부담하는 비중이 50.9%이지만,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7%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4〉 본인의 소득수준별 학자금 대출상환 주부담자

(단위 : 명, %)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기타
100만원 미만	26 (47.3)	28 (50.9)	1 (1.8)
100만원~200만원 미만	121 (60.8)	78 (39.2)	0 (0.0)
200만원~300만원 미만	57 (70.4)	23 (28.4)	1 (1.2)
300만원 이상	46 (73.0)	17 (27.0)	0 (0.0)

주 : 전체 415명 중 기혼 38명은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 한국교육고용패널 8차

학자금대출이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의 52.3%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29.4%는 그렇다, 22.9%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25.1%는 상환부담감을 보통으로 느끼고 있었고, 22.6%는 상환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렇지 않다 13.2%, 전혀 그렇지 않다 9.4%). 그리고 기존패널이 보정패널에 비해 학자금대출의 심리적 상환부담감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정패널에서 상환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44.8%지만 기존패널은 56.7%로 약11.9% 더 큰 수치이다.

9) 부모님의 소득 혹은 가구의 전체 소득에 의해서도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한국교육고용패널 8차년도에서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전체의 소득을 조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석이 불가능하다.

〈표 5〉 학자금대출의 심리적 상환부담

(단위 : 명, %)

	전체	기존패널	보정패널
전혀 그렇지 않다	39 (9.4)	24 (9.2)	15 (9.8)
그렇지 않다	55 (13.2)	32 (12.3)	23 (14.9)
보통이다	104 (25.1)	57 (21.8)	47 (30.5)
그렇다	122 (29.4)	80 (30.7)	42 (27.3)
매우그렇다	95 (22.9)	68 (26.0)	27 (17.5)
전체	415 (100)	216 (100)	154 (100)

주 :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을 시작한 415명이 대상임.
 자료 : 한국교육고용패널 8차

대출 학자금대출자의 40.4%가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소비와 지출을 줄이고, 32.9%는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상환부담은 일자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상환을 위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본 경험이 30.1%, 상환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경험이 21.8%, 상환을 위해 적성이거나 비전보다 보수를 먼저 고려해서 일을 해 본 경험이 20.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가족과 친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경험, 상환을 유예한 경험, 상환을 위해 동시에 여러가지 일을 한 경험도 각각 10% 이상이며, 상환을 위해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경험도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자금대출 관련 상환경험

(단위 : 명, %)

	전체	기존패널	보정패널
상환 위해 소비와 지출 감소	167 (40.4)	102 (39.2)	65 (42.5)
원금 또는 이자 연체	135 (32.9)	82 (31.8)	53 (34.9)
상환 위해 적극적 구직활동	124 (30.1)	73 (28.2)	51 (33.3)
상환 위해 계속근로	90 (21.8)	58 (22.4)	32 (20.9)
상환 위해 보수 먼저 고려	86 (20.9)	52 (20.2)	34 (22.2)
상환 위해 가족, 친지, 지인 대출	66 (16.1)	39 (15.1)	27 (17.7)
상환 유예경험	53 (13.0)	32 (12.5)	21 (13.8)
상환 위해 동시에 여러 가지 일	51 (12.4)	23 (8.9)	28 (18.4)
상환 위해 금융권 대출	16 (3.9)	4 (1.6)	12 (7.8)

주 :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을 시작한 415명 중에서 각 문항에 대한 결측치를 제외한 비율임.
 자료 : 한국교육고용패널 8차

2.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상환부담 결정요인

대출자의 학자금대출 상황에 대한 경제적 상환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연체경험여부로 1이면 연체경험이 있는 경우, 0이면 연체경험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설명변수는 개인적 속성변수, 경제적 속성변수, 대학 관련 변수를 사용하였다. 개인적 속성변수로 성별, 부모와 동거여부, 기혼여부, 거주지를 고려하였다. 경제적 속성변수는 학자금대출 주상환부담자, 학자금을 포함한 채무여부¹⁰⁾, 소득수준, 일자리여부 및 임금근로자여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학 관련 변수는 4년제대학여부, 국공립여부, 대학소재지, 전공계열과 졸업후 경과기간이다.

학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채무상환에는 가족구성원 모두를 한 단위로 보고 가구소득을 설명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8차년도에는 부모님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구소득은 제공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 기준의 소득수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소득수준은 본인 및 배우자 기준을 의미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부의 대물림현상, 즉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성 있다고 알려져 있어(안종범·전승훈, 2008; 윤형호·김성준, 2009), 본 연구와 같이 자녀의 소득기준에 의한 결과와 부모를 포함한 가구소득 기준을 활용한 연구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표 7〉 변수의 기초통계

	평균	표준편차
학자금대출 연체경험여부(1=예)	0.328	(0.470)
성별(1=남)	0.547	(0.498)
부모동거여부(1=예)	0.557	(0.497)
기혼여부(1=예)	0.091	(0.288)
거주지(1=특별시·광역시)	0.532	(0.500)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자(1=본인)	0.621	(0.486)
채무여부(1=예)	0.635	(0.482)
월평균 소득수준(만원)		
100이하	0.135	(0.343)
100~200이하	0.475	(0.500)
200~300이하	0.197	(0.398)
300이상	0.153	(0.360)
졸업후 경과기간		
1년이내	0.143	(0.348)
1~2년이내	0.167	(0.374)
2~3년이내	0.411	(0.493)
3년이상	0.281	(0.450)
보정패널여부(1=예)	0.369	(0.482)

<표 계속>

10) 8차 설문 문항에서는 채무가 있는지 문의한 후, 채무총액과 본인의 학자금 관련 총액을 조사하고 있다. 학자금을 제외한 채무변수를 이용하기 위해 채무총액과 학자금 총액을 차감한 결과 결측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액을 응답하는 조사결과는 결측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채무총액 및 학자금총액, 학자금을 제외한 채무여부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지 않았다.

	평균	표준편차
일자리여부(1=예)	0.837	(0.369)
임금근로자여부(1=예)	0.690	(0.463)
4년제여부(1=예)	0.542	(0.499)
국공립여부(1=예)	0.118	(0.323)
대학소재지(1=서울권)	0.155	(0.363)
인문사회	0.330	(0.471)
자연공학	0.355	(0.479)
전공계열	0.170	(0.376)
예체능	0.170	(0.376)
교육	0.062	(0.241)
의학	0.084	(0.277)
N	406	

주 : 1)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채무여부임.

2)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자리 기준임. 분석대상에서 일자리 개수에 대해서 336명이 1개, 9명 2개, 1명 3개라고 응답하고 있음.

자료 : 한국교육고용패널 3차~8차

한편 한국교육고용패널은 2004년을 기준으로 고3코호트조사는 연령을 대한 설문문항이 없는 데 이는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연령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7차조사 이후부터 추가된 남성 보정패널은 기존패널보다 평균연령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보정패널여부를 포함시켰다.

모형에 활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학자금대출의 연체경험은 전체의 32.8¹¹⁾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은 54.7%이며, 부모동거여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55.7%로 더 높고, 혼인상태는 기혼자가 9.1%로 비중이 아주 낮은 편이다. 거주지는 특별시 및 광역시 등 대도시 분포 비율이 53.2%에 이른다.

그리고 본인이 학자금대출의 주상환자인 경우가 62.1%로 과반수를 넘고,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채무가 있는 비중은 63.5%로 나타났다.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가 47.5%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19.7%, 300만원 이상 15.3%, 100만원 이하 13.5%순이다.

졸업후 경과기간이 2년 이상~3년 이내인 경우가 41.1%로 가장 많고, 3년 이상과 2년 미만이 각각 28.1%, 31.0%로 나타났다. 보정패널에 추가된 대상은 전체의 36.9%이며 일자리여부에서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많은 83.7%에 이른다. 임금근로자인 경우는 전체의 69.0%이다.

대학 특성과 관련하여 4년제대학이 전문대에 비해 많은 54.2%이며, 설립주체는 국공립이 11.8%로 사립에 비해 월등히 적은 편이다. 대학소재지가 서울권인 경우가 비서울권에 비해 작은 15.5%이다. 전공계열은 자연공학이 3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문사회 33.0%, 예체능 17.0%, 의학 8.4%, 교육 6.2%순이다.

설명변수의 조합에 따라 3개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1)은 기본적인 개인 특성변수와 일

11) 앞의 학자금대출 상환상태에서의 연체경험 32.9%와 0.1%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상환부담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된 변수 중 결측치를 제거하여 표본의 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리를 포함한 경제적 특성변수로 구성되며, (모형2)는 대학 관련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윤희 외(2012)에 의하면 전공계열, 국공립여부, 4년제대학여부, 대학소재지 등이 학자금 연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관련 변수가 개인 및 일자리 관련 특성 등을 통제 한 후에도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상환부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모형3)은 경제적 특성변수에서 현재 일자리여부 대신 임금근로자여부를 포함하였다. 임금근로자는 자영업 및 미취업,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안정성은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상환부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대학졸업자의 학자금대출 연체경험 결정요인 : 로짓분석

종속변수 : 연체경험여부(1=예)	(모형1)		(모형2)		(모형3)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1=남)	-0.462	(0.382)	-0.658	(0.449)	-0.710	(0.445)
부모동거여부(1=예)	-0.013	(0.249)	-0.099	(0.256)	-0.101	(0.259)
기혼여부(1=예)	-0.365	(0.450)	-0.490	(0.457)	-0.411	(0.456)
거주지(1=특별시·광역시)	0.656 ***	(0.238)	0.607 **	(0.241)	0.592 **	(0.240)
상환부담자(1=본인)	0.247	(0.269)	0.202	(0.275)	0.140	(0.271)
채무여부(1=예)	1.292 ***	(0.286)	1.318 ***	(0.288)	1.299 ***	(0.287)
가구소득(기준=100만원이하)						
100~200만원이하	-0.387	(0.332)	-0.345	(0.339)	-0.469	(0.329)
200~300만원이하	-0.555	(0.414)	-0.518	(0.423)	-0.618	(0.420)
300만원이상	-0.296	(0.426)	-0.257	(0.436)	-0.333	(0.433)
졸업후 경과기간(기준=1년이내)						
1~2년이내	-0.768 *	(0.429)	-0.461	(0.546)	-0.396	(0.539)
2~3년이내	-0.466	(0.371)	-0.264	(0.470)	-0.250	(0.469)
3년이상	-0.884 ***	(0.290)	-0.590	(0.414)	-0.577	(0.411)
보정패널여부(1=예)	0.667	(0.427)	0.917 *	(0.515)	0.933 *	(0.513)
일자리여부(1=예)	-0.601 *	(0.329)	-0.620 *	(0.332)		
임금근로자여부(1=예)					-0.239	(0.262)
4년제여부(1=예)			-0.327	(0.389)	-0.350	(0.387)
국공립여부(1=예)			-0.453	(0.407)	-0.436	(0.406)
대학소재지(1=서울권)			0.289	(0.319)	0.264	(0.318)
전공계열(기준=인문사회)						
자연공학			0.033	(0.286)	0.0262	(0.285)
예체능			-0.068	(0.352)	-0.094	(0.351)
교육			-0.277	(0.528)	-0.283	(0.524)
의학			-0.544	(0.494)	-0.548	(0.494)
상수	-0.739	(0.475)	-0.606	(0.533)	-0.783	(0.528)
Likelihood Ratio	-229.346		-226.922		-228.238	
Pseudo R ²	0.1068		0.1163		0.1111	
N	406					

주 :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자료 : 한국교육고용패널 3차~8차

분석결과, 모형에 상관없이 현재 거주지, 채무여부, 일자리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상환부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채무 상태이며, 학자금을 포함한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 경제적 상환부담수준이 증가하며 이는 1% 이내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채무가 있는 학자금대출자가 채무가 없는 학자금대출자에 비해 경제적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3.640~3.740배로 정의 관계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경제적 상환부담수준이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1% 또는 5% 이내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때 오즈비는 1.808~1.927배이다. 이는 일자리를 위해 부모님이 있는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을 떠나 혼자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지출하는 전월세 등을 포함하는 생활비의 부담이 학자금상환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일자리여부는 경제적 상환부담과 부의 관계지만(오즈비 0.540~0.548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10% 이내로 낮고, 일자리형태는 부의 관계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가구소득도 1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상환부담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나지만 유의미한 영향은 아니다.

(모형2)와 (모형3)에 의하면,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자금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4년제대학과 국공립대학은 경제적 상환부담과 부의 관계, 서월권 소재대학은 정의 관계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졸업후 경과기간은 (모형1)에서만 유의하고, 대학 관련 특성변수들을 추가한 (모형2)와 (모형3)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성별, 부모와 동거여부, 기혼여부, 학자금대출의 주상환부담여부도 학자금대출의 심리적 상환부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관심변수는 아니지만 (모형2)와 (모형3)에서 보정패널일 경우 경제적 상환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상환부담에 대한 코호트효과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3. 학자금대출의 심리적 상환부담 결정요인

대출자가 느끼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심리적 상환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는 학자금대출의 상환부담정도에 대한 리커트형 5점 척도가 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⁴⁾. 설명변수 및 모형조합은 앞에서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상환부담 결정요인에 활용된 변수를 모두 활용하고 경제적 상환부담인 연체경험여부도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경험이 심리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2) 본 자료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216명의 대출자 중 85명(39.3%)이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미혼으로 나타났다.
 13)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상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완료했거나 현재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중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상당수의 미취업 대출자가 포함된다면 일자리여부 및 일자리형태가 경제적 상환부담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 학자금대출의 상환부담에 대해 응답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 9.1%, 그렇지 않다 13.3%, 보통이다 25.1%, 그렇다 29.6%, 매우 그렇다 22.9%.

〈표 9〉 대학졸업자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요인 : 순서형 로짓분석

종속변수 : 상환부담(5=매우 그렇다)	(모형4)		(모형5)		(모형6)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1=남)	-0.114	(0.280)	-0.089	(0.324)	-0.128	(0.324)
부모동거여부(1=예)	-0.160	(0.198)	-0.095	(0.202)	-0.156	(0.205)
기혼여부(1=예)	-0.229	(0.355)	-0.170	(0.363)	-0.198	(0.361)
거주지(1=특별시·광역시)	0.374 **	(0.185)	0.396 **	(0.187)	0.386 **	(0.187)
상환부담자(1=본인)	0.377 *	(0.207)	0.413 *	(0.213)	0.350 *	(0.211)
연체경험여부(1=예)	0.750 ***	(0.206)	0.757 ***	(0.208)	0.796 ***	(0.208)
채무여부(1=예)	0.140	(0.212)	0.128	(0.214)	0.120	(0.215)
가구소득(기준=100만원이하)						
100~200만원이하	-0.215	(0.273)	-0.223	(0.276)	-0.280	(0.270)
200~300만원이하	-0.260	(0.331)	-0.341	(0.337)	-0.348	(0.335)
300만원이상	-0.541	(0.348)	-0.497	(0.352)	-0.511	(0.351)
졸업후 경과기간(기준=1년이내)						
1~2년이내	0.046	(0.336)	0.152	(0.429)	0.178	(0.428)
2~3년이내	0.386	(0.289)	0.549	(0.363)	0.548	(0.361)
3년이상	0.340	(0.232)	0.465	(0.321)	0.498	(0.320)
보정패널여부(1=예)	-0.241	(0.318)	-0.147	(0.378)	-0.113	(0.378)
일자리여부(1=예)	-0.699 ***	(0.268)	-0.741 ***	(0.270)		
임금근로자여부(1=예)					-0.655 ***	(0.213)
4년제여부(1=예)			0.038	(0.298)	0.001	(0.296)
국공립여부(1=예)			-0.506 *	(0.296)	-0.494 *	(0.297)
대학소재지(1=서울권)			-0.185	(0.255)	-0.159	(0.255)
전공계열(기준=인문사회)						
자연공학			0.153	(0.228)	0.145	(0.228)
예체능			0.371	(0.277)	0.311	(0.277)
교육			0.500	(0.401)	0.489	(0.400)
의학			0.752 **	(0.371)	0.797 **	(0.371)
/cut1	-1.455 ***	(0.399)	-2.284 ***	(0.456)	-2.242 ***	(0.445)
/cut2	-0.213	(0.392)	-1.173 ***	(0.439)	-1.126 ***	(0.428)
/cut3	1.223 ***	(0.395)	0.092	(0.434)	0.140	(0.423)
/cut4	1.058 **	(0.422)	1.555 ***	(0.440)	1.606 ***	(0.430)
Likelihood Ratio	-597.808		-593.222		-592.233	
Pseudo R ²	0.0386		0.0459		0.0475	
N	406					

주 :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자료 : 한국교육고용패널 3차~8차

분석결과, 모형에 상관없이 현재 거주지, 자신이 주상환부담자, 연체경험, 일자리여부 및 임금근로자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중 학자금대출의 심리적 상환부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체경험과 일자리 관련 변수이며, 학자금 상환 중 연체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현재 일자리가 있는 경우, 임금근로자인 경우 상환부담수준이 감

15) 심리적 상환부담을 이산형으로 변환하여 로짓모형을 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다.

소하며 이는 1% 이내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연체경험자가 미경험자에 비해 심리적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2.120~2.217배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오즈비가 0.477~0.497배, 임금근로자는 비임금근로자 및 미취업자 등에 비해 0.519배로 심리적 상환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현재거주지가 대도시 일 경우와 상환부담자가 본인인 경우는 심리적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통계적 유의수준이 각각 5%와 10% 이내로 나타났다. 심리적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각각 1.454~1.486배와 1.419~1.511배이다.

앞에서 경제적 상환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밝혀진 대학 특성변수들 중 일부는 심리적 상환부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5)와 (모형6)을 살펴보면, 전공계열이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의과학계열이면 심리적 상환부담이 증가되며 이는 통계적으로 5%이내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의과학계열일 경우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심리적 상환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2.121~2.219배가 된다. 이는 의학전공계열 졸업자들은 준거집단에 비해 대학등록금이 높더라도 기대 생애소득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 상환부담과 부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반대의 결과이다.

설립주체가 국공립일 경우 사립에 비해 심리적 상환부담이 감소하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10% 이내로 나타났다. 이때 오즈비는 0.603~0.610배이다. 이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수준이 사립대학에 비해 1/2수준이라는 점에서 학자금대출에 대한 수요가 낮고(김지하·이병식, 2009), 그로 인해 심리적 상환부담도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4년제대학의 경우는 심리적 상환부담과 정(+)의 관계 서울권소재대학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별, 부모와 동거여부, 기혼여부,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채무여부, 가구소득수준 및 졸업이후 경과기간은 학자금대출의 심리적 상환부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 II장에서 언급한 연구문제의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및 심리적 상환부담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 경제적 및 심리적 상환부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각 채무여부와 일자리여부로 상이하다. 둘째, 일자리는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및 심리적 상환부담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경제적 상환부담보다 심리적 상환부담에서 더 크다. 셋째, 소득수준은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및 심리적 상환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 넷째, 졸업 대학 관련 특성은 경제적 상환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학설립주체와 전공계열은 심리적 상환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국공립대학일 경우 학자금대출의 심리적 상환부담을 감소시키고, 의학전공계열일 경우 학자금대출의 심리적 상환부담을 증가시킨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출자의 학자금대출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경제적 및 심리적 상환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자금대출 상환실태에서 학자금대출의 상환부담자는 주로 본인이며(본인 61%, 부모님 37%), 본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 스스로 학자금대출을 부담하는 비율은 47%지만, 300만원 이상이면 73%에 달하였다. 또한 상당수의 대출자들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소비와 지출을 감소한 경우가 전체의 40%에 이르며, 원금 또는 이자를 연체한 경험 33%, 학자금 상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험 30%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52%)이 심리적 상환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및 심리적 상환부담의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채무관련 경험 및 일자리 등 경제적인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요인들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경제적 및 심리적 상환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경제적 상환부담에는 채무여부가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심리적 상환부담에는 학자금대출 연체경험과 일자리여부, 임금근로자여부가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대학 관련 변수(국립대여부, 의학계열전공)와 본인이 상환부담자여부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도시거주도 경제적 및 심리적 상환부담을 모두 증가시키지만, 소득수준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10> 학자금대출의 상환부담요인

구분		영향요인
경제적 상환부담 (학자금대출 연체경험)	증가1)	채무, 대도시거주
	감소	일자리
심리적 상환부담	증가	학자금대출 연체경험, 대도시거주, 자신이 상환부담, 의학계열 전공
	감소	일자리, 임금근로자, 국공립대학

주 : 밑줄은 경제적 상환부담에만 또는 심리적 상환부담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한편 대학 관련 변수는 연체율, 즉 경제적 상환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윤경 외(2012)의 결과와 상이하다. 졸업대학의 국공립여부와 전공계열은 단지 심리적인 상환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학소재지와 전공계열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 특성변수들이 학자금대출의 경제적 및 심리적 상환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은 노동시장성과와 자산 및 부채 등 경제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들 노동시장성과와 자산 및 부채는 대학 관련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 특성변수가 학자금대출 상환부

답에 미치는 영향은 연립방정식모형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할 때 활용되는 절대평가지표¹⁶⁾에 취업률이 고려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학자금대출제도의 재정유지가능성을 위해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자리가 학자금대출의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자금대출제도의 재정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출자의 취업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대출미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여부와 채무현황은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경제여건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셋째, 동일대학에서 학자금대출 신청자간에 차별적인 자격기준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윤경 외(2012)는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대출규모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대학관련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차별화된 학자금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이들 대학 특성변수는 심리적 상환부담에만 영향을 미칠 뿐 경제적 상환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1개년도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수준을 이용한 횡단면 분석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제적 상태와 심리적 상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본 연구는 동태적(dynamics) 연구를 통해서 보다 의미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8차년도에 새롭게 조사된 학자금대출 상환 관련 변수들이 향후 패널조사로 구축되면 본 연구에 대한 동태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을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8차에 추가된 학자금대출 상환경험에 대한 설문문항의 일부는 조사응답자 및 자료이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변경이 필요하다. 8차 설문지 432번 설문문항에서 ‘대학(학부) 관련 학자금 대출’이 기존 차수와 동일하게 등록금에 한정된 것인지, 생활비까지 확대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조사응답자에 따라 상이한 답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¹⁷⁾. 둘째, 일부 변수에서 논리적 오류가 발견되므로 클리닝과정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8차 설문지 432번은 ①대학을 다닌 경험이 없음, ②학자금 대출받은 경험이 없음, ③학자금 대출 받았음 중에서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학력이 대학 중퇴 이상이거나 대학 재학중인 응답자만 ② 또는 ③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자료에는 8차 설문지 432번에 대해 ② 또는 ③번의 응답자 중 현재 학력이 중졸과 고졸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각각 2명, 90명). 넷째, 학자금대출총액 등 금액에 대한 자료는 결측치가 많으므로 추가적으로 이를 대체(imputation)한 자료가 제공된다면 연구자들의 자료이용에

16) 절대평가지표는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로 구성되어 있다.

17) 432번 문항은 “대학(학부) 관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대학원 학자금 대출은 제외)”이다. 반면 기존 차수에서 유사한 조사문항 중 106번 문항은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학부) 재학 중 등록금 납부를 위해 학자금 대출(정부보조금, 학자금 대출,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 및 기타 대출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대출총액이 중요 변수로 활용되어야 하나 별도의 대체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한국교육노동패널이 한국노동패널과 같이 결측치가 있는 자료와 별도로 결측치를 대체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면, 한국교육노동패널의 유용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이 아쉬운 점은 7차조사 이후부터 부모 및 형제 등 전체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소득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가구소득이 본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변경되어 조사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자녀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점에서 다음 조사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모 및 형제의 가구소득도 추가로 제공된다면 연구에 더욱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경선·김영식(2011).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7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안나, 이병식(2008). 학자금대출이 대학재학기간 연장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제18권 제4호.
- _____ (2009). 대학생 학자금대출 수요 집단의 특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7권 제1호.
- 김훈호(2011). 가계소득이 학자금 대출 참여 및 누적 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년제 사립 전문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0권 제3호.
- 김희삼(2010).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한국개발연구. 제32권 제2호 (통권 제107호).
- 남수경(2012).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의 방향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 송창용·손유미(2011).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의 노동시장 이행 분석. 제7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종범·전승훈(2008),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통권 제56호).
- 오호영(2012). 대학등록금 인하, 어떻게 할 것인가. 2012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윤형호·김성준(2009). 부의 대물림? 가계소득과 사교육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 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2008).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박영사
- 이윤경(2012). 수요집단 특성에 따른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제도 연체율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 이필남, 김경년(201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2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통계청. 청년층 첫취업소요기간 증가, 고령층 58.5% 장래에 일하기를 원함. 2011. 7. 28자 보도자료.
- 하연섭(2008). 국가장학재단 설립 및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_____ (2009).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고용정보원. 고졸청년, 대학 진학률 낮아지고 취업률은 높아져. 2013. 2. 1자 보도자료.
- Minicozzi, A.(2005). The short term effect of educational debt on job decision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4, p.427-430.
- Rosemtjal, M., Marquette, P., & Diamond, J.(1996). Trends along the debt-income axis: implications for medical students' selections of family practice careers. *Academic Medicine*, 71(6), p.675-677.
- Woodworth, P. A., Chang, F. C. & Helmer, D. S.(2000). Debt and other influences on career choices among surgical and primary care residents in a community-based hospital system.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 180(6), 570-576.

❖ Abstract ❖

The Korean Young's Burden of Student Loan Repayment

Namhui Hwang(KIHASA)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status of student debt repayment and examin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financial and psychological burden of repayment felt by Korea's college graduates. In this study, Logit and Ordered Logit models are employed to analyze data, using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tual borrowers of student loans are mainly college students, and 61% of them repaid the debt on their own, with the ratio higher with higher income after graduation. Second, 52% of student loan borrowers have psychological burden of repayment, and 40% tend to spend less while in debt. Third, the debt and employment statu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financial burden of repayment, while default has rather a large impact on the psychological burden of repayment. Also, those who live in metropolitan areas tend to have higher financial and psychological burden.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s do not have much impact on the financial repayment burden felt by borrowers. But the psychological burden felt by borrowers from national (public) universities and with medical major is different from those from private universities and with other majo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repayment burden of student loan seems to be mainly caused by borrowers' economic status such as the amount of debt and employment status.

Key words : student loan, repayment burden, keep